

SK하이닉스, 저소득층 아동에 정기후원

SK하이닉스(대표 박장석)가 디딤씨앗통장 가입 후 생활이 어려워 저축하지 못하거나 저축액이 적은 청주시역 저소득층 아동을 후원한다.

청주시에 따르면, SK하이닉스는 2013년 1월까지 1년 동안 저소득 아동 200명에게 월 3만원씩 모두 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.

공동모금회를 통해 매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디딤씨앗사업단에 지정 기탁하는 방식이며,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 아동이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(지방자치단체)도 같은 금액을 만 17세까지 적립해주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.

적립금은 학자금, 창업지원금, 주거비, 의료비, 결혼자금 등 자립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.

청주에서는 960명이 디딤씨앗통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2013/02/19>